# 樊巖 蔡濟恭의 『載筆錄』에 나타난 觀風의 情調

김용주\*

------- || 차 례 || -

- I. 序言
- Ⅱ. 「載筆録」의 作品世界
  - 1. 書劍感慨
  - 2. 關防商量
  - 3. 過看民情
- Ⅲ. 「載筆錄」의 特徴과 意義
- IV. 結語

## 【국문초록】

樊巖 蔡濟恭은 홍문관의 문관으로서 北評事의 임무(1753~1754)를 수행하였다. 국왕의 신임으로 가끔 중요사안이 있으면 지방관으로 나아가기도 했는데, 이 北關行도 그일환이다. 그는 임금의 출행을 보좌하는 史官이나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太師의 심경으로 북관에서의 경험들을 시로 썼다. 이에 번암의 시를 書劍感慨와 關防商量, 過看民情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書劍은 義氣가 있는 선비를 이른다. 그는 임경업 등의 大明義理에 감정이입하기도 하고, 사방에 임금의 사신으로 가서 그 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품기도 한다. 그래서 오직 檀道濟처럼 입신하고 老萊子처럼 부모에 효도하는 忠孝兼全을 원했다. 이것이 그의 서검으로서의 의기이다.

그는 중화문화의 영역이 축소됨을 아쉬워하며 이적의 기세가 융성함을 안타까워했다. 이적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선을 大明의 문화적 적통으로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sup>\*</sup> 안동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 국방은 문화적인 국방이며 尊王攘夷의 세계관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것이 그의 관방 인식이다.

또한 순행 중에 길옆에 펼쳐지는 이향의 풍속이나 민간의 질고를 나그네의 마음으로써 정서적 수용을 하였다. 번화한 원산항이며 수자리 사는 어린 병사의 망향심이며 인적이 드문 산촌 고을이며 군영의 사냥대회 등 민정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시어로 사실적인 표현을 했으니 이것이 그의 民情 인식이다.

번암에게 있어서 觀風은 민간의 세세한 사정을 살피는 관풍이 아니다. 도성에서 관료 생활을 하던 館閣文人이 북관 변방에서 느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충격을 자기 스타일로 정직하게 흡수한 일기장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재필록』의 관풍이다. 그리고 그의 시는 기상이 높아 장엄미가 있으며, 비분강개하는 비장미도 함께하고, 대청관계를 철저히 華夷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민정을 살핌에서는 매우 寫實的이고 土俗的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제어: 蔡濟恭, 北評事, 書劍, 關防, 民情, 大明義理, 觀風, 寫實

# I. 序言

본고는 樊巖 蔡濟恭(1720~1799)의 『樊巖先生集』1) 권8의 『載筆錄』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재필록』은 번암이 北評事로서 北關의 六鎭 지역을 巡行하며 지은 詩錄이다. 1753년(영조 29) 4월에 北評事가 되어 북도로 가게 된다. 당시 육진 지역은 민생이 곤궁한데다 밀무역 사건 등이 터져 책임자들이 줄줄이 죄를 받는다.2) 나라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능력이 있는 문관을 파견해야 했고, 그 일환으로 번암이 가게 된다. 번암은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 南人의 실질적 領袖이며 한 시대를 이

<sup>1)</sup>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樊巖先生集』은 『韓國文集叢刊』의 권235과 권236에 속하며, 이하 『樊巖集』으로 표기한다.

<sup>2)『</sup>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2월 30일. "以咸鏡監司黃晸, 北兵使李景喆, 以有紋緞禁買事, 有不察之失, 惶恐待罪事."

끌었던 재상으로서, 남긴 저작물의 분량 또한 적지 않으니 앞으로도 많은 연구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이제까지 번암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로 문학 외적인 측면으로 경제정책・西學・정치사상・사회사상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1980년대까지 석사논문 한 편이 있었으며,3) 90년대까지는 주로 '傳'연구에 그쳤고,4)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문학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5)이 나오는 등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번암이 남긴 족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문집도 총 59권 27책의 거대 분량이니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번암은 그의 문집 중에서 총19권에 해당하는 많은 시를 남겼으며 각 부문마다 나름의 제목이 붙어 모두 14개 부문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전체시를 개괄하는 의미에서 한 편의 논문이 있는데,6) 그 논문에서 『재필록』의일부가 소개되었다. 권13~14에 해당하는 『含忍錄』은 현재 세 편의 연구가 나와 있으며,7) 나머지는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sup>3)</sup> 채용기, 『번압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7.

<sup>4)</sup>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승복, 『樊巖 蔡濟恭의 傳 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준하, 『樊巖 蔡濟恭의 傳 文學 연구」, 『語文研究』 24, 1993, 이신복, 「蔡濟恭의 萬德傳 研究」, 『漢文學論叢』, 1994. 등이 있다.

<sup>5)</sup> 이희수, 『樊巖 蔡濟恭의 記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文學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등이 있다. 백승호의 논문은 그 외 「18세기 南人文壇의 詩會」, 『冠嶽語文研究』, 2004,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震檀學報』101, 2006, 「樊巖 蔡濟恭의 詩社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漢文學報』 제26輯, 2012. 등이 있다.

<sup>6)</sup>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7, 대학사, 2013.

<sup>7)</sup> 채용기, 위의 논문. 金甲起,「樊巖 蔡濟恭의 尊我的 文化意識」。『教育科學研究』第7輯, 1993.

『재필록』의 시는 외부와의 접촉영역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시상이 응축되어 긴장감이 높고 意象의 상징성이 고양되어 있으며 번암시의 장처인 시적 기상 또한 높아서 장엄미와 비장미를 함께 갖추었고, 본인의 관각문 인적 성향과 달리 異鄉의 풍물에 대한 實存的 理解를 담은 작품들이 많으며, 번암의 시문학 전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재필록』은 그의 館閣文學的 性向과는 많이 다른 독특한 유형의 시록이어서 그의 시문학 연구의 한축을 형성한다고 판단되어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는 『재필록』의 시적 특성을 3가지로 분류하여 문학적 함의를 구명하려고 한다. 번암은 『재필록』의 서문에서 스스로 "비록 太師가 風謠를 채집하는 것만은 못해도 '書劒의 感慨'나 '關防의 商量'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둘쯤 쓸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8)라고 했다. 그래서 『재필록』의 시들을 '書劒感慨'와 '關防商量'의 두 갈래로 분류하고, 관풍의 본의에 가까운 시들을 '過看民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갈래로 삼으려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재필록』에서 감지되는 번암시의 의의 몇 가지를 정리해보 겠다.

# Ⅱ.『載筆錄』의 作品世界

그의 북평사 재직기간은 1753년(영조 29) 4월부터 이듬해인 1754년(영조 30) 5월까지인 1년 남짓의 기간이다. 하지만 모친의 병환으로 출발을 지체하다가 이듬해 1월이 되어서야 임지로 떠나게 되니. 『재필록』의 시는

졸고, 「含忍錄에 나타난 樊巖 蔡濟恭의 華夷觀」, 『大東漢文學』, 第41輯, 2014.

<sup>8)</sup> 蔡濟恭,「載筆錄序」,『번암집』 권8. "雖不足以備太史風謠之採, 書劍之感慨, 關防 之商量, 亦不無一二可取, 遂名之曰載筆錄."

1754년 1월부터 이임하는 그해 5월까지 지은 것이다. 이 行程에서 번암은 모두 115題 141首의 시를 지었다.

'載筆'이란 원래 제왕이 출행할 때 사관이 문구를 휴대하여 따라가는 것을 이른다. 『禮記』에서 "史官은 붓을 가지고 따라가고 士는 언사를 가지고 따라간다."의라고 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천자가 太師에게 명하여 시를 채집해 올리게 한다."10)라고 했다. 번암이 북평사로 파견되어 『재필록』이란 시록을 남겼으나, 왕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민간의 시를 채집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순행을 하면서 '말에다 붓을 싣고 다니며[載筆]' 민정을 느껴보는 마음으로 시를 썼다.

『재필록』의 시들은 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다. 1754년(영조 30) 1월에 북평사의 명으로 출발하면서 지은 「薩川路中」에서 시작하여 북관에 들어서기 직전에 지은 「磨雲嶺」까지가 모두 26수이며, 북관에 들어서서 지은 「磨天嶺」에서 그 지역을 순행하면서 북평사의 임무를 마치고 그해 4월에 다시 북관을 빠져나오면서 지은 「自武溪湖行到明澗」까지가모두 62수이며, 북관을 빠져나온 후 지은 「入七寶山」부터 병을 앓고 일어난 후에 지은 「病起」까지가모두 53수이다. 『재필록』 전체의 시 115제의141수를 시체별로 분류하자면 5언 절구가 2수, 7언 절구가 46수, 5언 율시19수, 7언 율시 65수, 5언 고시가 5수, 7언 고시가 4수이다. 여기에서 5언보다 7언이 많고, 절구보다 율시가 많고, 고시보다 근체시가 더 많으며, 가장많은 것은 7언 율시임을 볼 수 있다. 번암의 다른 작품집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다르나 구성 비율은 대개 동일하니 번암은 고시보다는 근체시를, 5언보다는 7언을, 절구보다는 율시를 선호했으며, 그가 제일 즐겨 지은 것

<sup>9)「</sup>曲禮」上,『禮記』. "史載筆, 士載言."

<sup>10) 「</sup>王制」、『禮記』、"命大師、陳詩以觀民風."

은 7언 율시임을 알 수 있다.

출발하여 북관에 들기까지의 시들은 대개 임무에 대한 기대와 임금의 인정을 받는 문관으로서의 자신감이 서린 浩然한 기운의 시가 많다. 그리고 북관에 들어서서 북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은 시편에는 국경방 위의 위태한 분위기 속에서 충군애국과 존왕양이의 기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북관을 빠져나온 이후부터는 칠보산과 금강산을 거치면서 긴장이 풀린 상황에서 명승지를 여행하는 분위기의 시가 주조를 이룬다. 본고는 『재필록』을 연구함에 있어 觀風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는데 개개 작품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나 정취[情調]'를 구고하여 느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함을 밝혀둔다.

## 1. 書劒感慨

'書劍'은 곧 책과 칼이다. 당나라 高適의 시에 "東山에 한번 은거하여 흘려보낸 삼십 년 봄, 책과 칼이 풍진 속에 늙어갈 줄 알았으랴."<sup>11)</sup>라는 구절이 있다. '칼을 찬 선비로서의 의기가 풍진 속에서 늙어갔다'는 의미이다. 당나라 때에는 문인 학자가 칼을 소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던 듯하다. 南冥 曹植(1501~1572)은 退溪 李滉에 비견되는 학자로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는 「佩劍銘」에서 칼을 일러 "안으로 밝히는 것이 敬이고 밖으로 결단하는 것이 義이다."라고 하였다.<sup>12)</sup> 그는 이처럼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는 점이 독특하며, 이를 배운 그의 문인들은 나라가 위난에 빠졌을 때 의병활동을 많이 했다. 결국 書와 劍은 옛날 선비들의 일상 소지품으로, 곧 '학문'과 '의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서검'이라

<sup>11) 『</sup>全唐詩』,「人日寄杜二拾遺」,"一臥東山三十春,豈知書劍老風塵."

<sup>12)『</sup>南冥集』 21,「佩劍銘」、"內明者敬、外斷者義."

함은 곧 '학문과 의기를 함께 지닌 선비'의 의미가 될 것이다. 변암이 '書劒感慨'라 한 것은 곧 '학문과 의기를 함께 지닌 서검으로서 북평사가 되어 순행하며 느끼는 감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서검감개에 해당하는 각시마다 의기 있는 선비와 서검의 의미가 서로 부합됨을 확인하는 뜻에서 경전 등에서 상응하는 사례를 찾아 의미를 보강하였다. 다음의 7언 율시「將赴北評事聞忙趨屛衙薘川曉發」13)은 변암이 북평사의 명을 받아 길을 떠나다가 忠州에서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부친의 임소인 比安縣으로 돌아가려는 시점에 쓴 시이다.

行子雞鳴難久留 떠날 사람은 닭이 울어 머물 수 없는데 將軍祠畔曙星浮 장군 사당 언덕에 새벽별이 떠있구나 古來忠孝誰兼得 예부터 충과 효를 그 누가 겸전했던가 歲暮驅馳莽自愁 세모에 말을 모니 아득히 수심이 생기네 들판 저편의 언 강물은 차갑게 쩡쩡거리고 野外冰汀寒淅淅 말 앞의 구름어린 나무는 멀리서 서걱대네 馬前雲木逈颼颼 那由化作身千億 어찌하면 이 몸이 천억 개로 변하여서 어머님도 잘 모시고 궁궐에도 출입할까 留侍菅闈去玉樓

제목의 '籧川'으로 봐서 여기에서의 '將軍'은 당연히 林慶業(1594~1646)이며, 따라서 '將軍祠'는 충주에 있는 '忠烈祠'이다. 임경업은 大明義理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니 여기에 자신의 심정을 가탁한 작자 또한 그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함련의 '忠'과 '孝'는 서검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되는 덕목이다. '誰兼得'은 '忠'과 '孝'의 겸전이 어려운 일임과 작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함께 나타낸다.

<sup>13)</sup> 이 시는 권7인 『망미록』의 마지막 부분이나 작품의 성격상 『재필록』에 부합되기에 여기에 인용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충'과 병든 노모를 걱정하는 '효'가 마음속에서 교차함 이 주된 메시지이다.

이 시 전체의 의미연결은 '行子'와 '曙星', '忠孝'와 '自愁', '寒淅淅'과 '逈 颼颼', '化身'으로 이어진다. 충과 효를 당면과제로 하는 서검으로서 그것을 쉬이 검전할 수 없음에 수심이 생긴다. 마음의 갈등이 외물에 비춰지니 강물이나 나무도 그렇게 느껴지면서 갈등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닭울음'이나 '새벽별', '강물'이나 '나무' 등의 외물에 자신의 심경을 투영시킨다. 예로부터 '충과 효의 검전은 서검으로서 필생의 목표이며 이를이룬 사람은 곧 시대의 全人으로 인정되었다.'<sup>14)</sup> 번암은 갈등하면서도 이두 가치에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

다음은 북평사로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동대문을 나서 며 지은 7언 절구「評事辭朝」<sup>15)</sup>를 보자.

東出靑門驛路縣 동쪽으로 청문을 나서니 관로가 아득한데 橫騎駿馬涉平沙 준마를 비껴 타고 모래펄을 건너서 간다 貂裘試拂春星下 봄의 별빛 아래에 초구를 떨쳐입으니 不怕三山暮雪多 삼산에 저녁 눈이 많아도 두렵지 않구나

전구에서 '貂裘'는 곧 담비갖옷인데, 추위를 막는 최상의 의복이다. 더구나 한겨울에 북방으로 나서는 신하를 위한 왕의 하사품인 경우는 의미가배가된다. '試拂'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 동작이다. '春星' 즉 샛별 아래에서 초구를 고쳐 입었으니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벽

<sup>14)</sup> 開宗明義」,『孝經』. "忠孝兩盡, 則終於立身爲全人矣."

<sup>15) 『</sup>번암집』 권8. 이하 작품연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인용한 시는 모두 『樊巖集』 권8에서 나온 것이다.

별 아래에서 작자의 앞에 닥칠 난관에 대한 단단한 준비와 王事에 신명을 바칠 각오를 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절구와 달리 전구에서의 의미전환이 없다. 기구와 승구에서 난관과 극복의 의지가 제시되었고 전구와 결구에서도 점 충적으로 강해지고, 또한 왕명을 받은 서검으로서의 각오도 점충적으로 강 화된다. 왕조사회에서 서검에게 부과된 최상의 의리는 "사방에 임금의 심 부름을 가서 왕명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16이다. 작자는 이 시에서 그 최 상의 의리를 실현하고자 다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검의 감개를 드러내는 구절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 두드러진 것 몇 가지를 모아보겠다.

- ① 身當國事常思死 이 몸은 나랏일에 언제든 죽을 각오를 했으니 地到邊城未欲愁 변방 땅에 다다라도 근심이 들지 않네
- ② 摠是鴻濛非世界 모든 게 홍몽하여 인간세상이 아닌 듯한데 誰令鵬翮揷吾身 누가 붕새의 깃털을 내 몸에 꽂았는가
- ③ 宦跡檀公策 관직에서 단도제의 행적을 따르고 鄕心萊子衣 고향에서는 노래자의 옷을 입는다

①은 7언 율시「鐵嶺」의 2수 중 제1수 시의 경련이다. 철령은 관북지역으로 들어서는 고개인데, 오르막 40리 내리막 40리의 아흔아홉 구비로 유명하다. 율시의 경련은 전환국면으로 어려운 전고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여기에서는 전고를 쓰지 않고 '身當國事常思死'처럼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시에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좀 신중해야할 일이나 작자가 의도적으로 시의 기세를 돋우기 위한 선택인 듯하다. 바깥짝인 '地到邊城未

<sup>16) 「</sup>子路」、『論語』、"使於四方、不辱君命."

欲愁'도 마찬가지이다. '身當國事'나 '地到邊城'은 위기가 고조됨을, '常思死'나 '未欲愁'는 위기에 대처하는 한없는 용기와 각오를 드러내는 말이다. 철령을 넘어가는 상황을 벌써 胡人의 경계에 들어선 것처럼 위기감을 높여가고, 스스로 왕명을 받은 서검으로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기에 앞일이 두렵지 않음을 선언한다. 이는 바로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17)고 하는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한 것이다.

②는 7언 율시「磨雲嶺」의 경련이며, 마운령의 가파른 산길을 가면서 천년 동안은 쌓인 듯한 눈길을 헤쳐 나가다가 10리 길에 인가를 만나기도 하면서 지은 시이다. 눈앞에 펼쳐진 산천의 형상 모두가 태초의 미분화 상태처럼 원초적이어서 마치 인간의 세상이 아닌 듯이 여겨진다. 이에 작자는 스스로 '鵬鳥가 되어 거대한 날개로 날아올라 자잘한 인간세상을 뛰어넘어 훌훌 날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18) 작자는 이 행정에서 순간적으로 붕새처럼 하늘을 날아올라 일반과 차원을 달리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서점이 되기를 희구하고 있다.

③은 5언 율시「赴屛衙崇善道中有吟」의 경련이다. 북평사로서의 행정에 왕복 6천여 리를 달려서 임금에게 사후보고를 마친 뒤 부친의 임소인屛衙, 즉 비안현으로 달려가면서 지은 시이다. '檀公'은 남북조 시대 劉宋(420~479)의 명장 檀道濟(?~436)인데,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무수한 전공을 세워 대장군에 이르고 사직과 함께 죽은 立身의 전형이다. 작자는 북평사로 군무를 볼 때에 마치 단도제처럼 계책을 써서 공훈을 세우고집으로 돌아와서는 老萊子처럼 살가운 효도를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 시를 지었다. 이는 좀 도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忠과 孝로 대우의 관계를 만들

<sup>17)「</sup>刺客列傳」,『史記』 286. "士爲知己者死."

<sup>18) 「</sup>逍遙遊」、『莊子』、"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기 위해 그러한 듯하다. 번암에게는 충효가 곧 서검의 근본인 것이다.

번암에게 서검은 의기 있는 선비를 이른다. 큰 뜻을 품고 구만 리 장천을 날아 북쪽 오랑캐의 영역까지도 나아갈 붕새와 같다. 임금의 명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고 백행의 근본인 효도를 아울렀으니, 곧 유가적 기본 덕목 인 충효를 함께 가슴에 지닌 사람이라 하겠다.19)

## 2. 關防商量

'關防'은 '守關防邊'의 의미이니 곧 國防이다. 번암이 맡은 북평사의 임 무는 국방과 관계되는 일이니 '關防商量'의 장은 『재필록』 전체의 주제라 고 할 수도 있겠다. 관방상량에 대한 시는 작자가 會寧에서 富寧을 거치고 육진을 두루 순시하고 西水羅까지 갔다가 다시 鏡城에 머무는 등 주로 북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지어진 시들이 많다. 7언 율시 「茂山月 夜步巡城堞沲脀門樓口占,은 시제 그대로 달밖에 茂山의 성첩을 순시하 다가 성루에 올라 지은 시이다.

烟火新成都護州 車踰嶺外虜氛收 終風鼓角寒增厲 孤月關山黯自浮 直北旌旗臨漢塞 太平裘帶倚邊樓

세월 속에 새로이 도호부가 서게 되었으니 차유령 바깥으로 오랑캐 분위기가 가셨구나 바람결의 군악소리에 추위는 더 매서워지고 외로운 달 뜬 관산에 어둠이 더욱 짙어지네 북으로 펄럭이는 깃발은 한의 변방에 서있고 태평스런 사또는 변방의 누대에 기대어 섰다 封壃木柵非銅柱 경계의 목책은 참된 국경이라 할 수 없으니

<sup>19)</sup> 이외에도「崇善野」・「發綠楊」・「竹山道中」・「宿新安向淮陽是日猝寒」・「高原道 中遇風雪馬上有吟, · 「磨天嶺」 · 「西水羅」 · 「鰲山道中遇風雪馬上有懷」 · 「咸關嶺」 등이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千古邦羞滯白頭 천고 세월의 국치가 백두산에 어려 있구나

'車踰嶺'은 馬踰嶺이나 狄踰嶺처럼 적의 내습을 의미하는 고개이름이다. 태조 李成桂가 원나라 納哈出의 침공을 막아 전승한 곳이기도 하다.200차유령과 두만강 사이는 우리 영토임에도 호인들이 장기간 들어와 살았다. 이곳은 고려 尹瓘(1040~1111) 이후 긴 세월 동안 오랑캐 영역이었다가조선이 다시 찾은 곳이며, 다시 그곳에 도호부가 생겨서21) 더러운 오랑캐의 분위기가 가셔졌다는 얘기다.

'孤月'에 '關山'은 변방의 산에 달이 떠서 수자리 사는 이들에게 옅은 수심을 드리우게 하는 의상이다. 경련에서 '直北'에는 북쪽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旌旗'에 북향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으니 그 다음의 '臨漢塞'와 합해져서 작자의 애국적이며 존화주의적인 가치관을 보여준다. '북쪽의 오랑캐는 더럽고 비린내 나고 춘추대의를 모르는 夷狄이며 극복의 대상이다. 작자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大明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중화로서의 자부심이 교차된 심정을 여기에서 표출한다.'<sup>22</sup> 바깥짝의 '太平'은 곧 평화시기임을 말한다. 병자호란 이후 북방과의 교전이 없었으니 국경지방이지만 태도가 태평스럽다.

미련에서 작자는 강성한 夷狄이 미약한 '漢'을 윽박질러서 근거 없이 함부로 그어댄 국경을 인정할 수 없음을 외친다. '두 나라의 경계는 본래 先春嶺이었으니 그곳에 고려 시중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그런데 숙종 임진년(1712)에 청나라와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인의 압력과 우리 조정

<sup>20)「</sup>恭愍王」二,『高麗史節要』 227.

<sup>21)</sup> 車職嶺 바깥쪽은 지금의 茂山 지역으로, 1600년(선조 33)에 번호가 철수하여 북쪽으로 돌아갔다. 1674(현종 15)에 茂山鎭을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숙종 10년(1684)에 府로 승격시켰다. (『海東釋史』속집 권12)

<sup>22)</sup> 졸고 「含忍錄에 나타난 樊巖 蔡濟恭의 華夷觀」、『大東漢文學』 제14輯, 292면 참조

관료들의 무능으로 이후 분수령 이북과 백두산의 큰 못물이 또한 北胡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sup>23)</sup> 그래서 작자는 '千古邦羞'라는 한스런 표현으 로 시를 마무리한다.

요컨대 과거 오랑캐의 영역이었던 땅이 우리 중화의 영역이 되어 오랑 캐의 분위기가 가셔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중화의 영역이 북쪽으로 뻗 어나가기를 기대했다. 춘추대의를 모르는 이적은 극복의 대상이며 스스로 는 대명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 받은 소중화임에 자긍심을 느끼기에 새로 획정한 국경이 잘못되었음을 못내 한탄스러워 한다.

병자호란 이후 공황상태에 빠진 조선의 집권층들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 것이 바로 宋(960~1279)의 역사이다. 靖康之變(1127) 이후 금나라 에 포로로 잡혀간 송의 황제 徽宗과 欽宗은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금나라 에서 죽었는데, 7언 절구「會寧滌愁軒望五國城感吟」은 두 황제가 포로생 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 五國城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이다.

花石風流此可憐 화석과 풍류 좋아하다 이처럼 가련해졌으니 飢餐朔雪渴胡泉 굶주려 북방 눈을 먹고 호천에서 갈증채웠네 江南甲第秦丞相 강남의 남송 제일 큰 저택에서 숭상 진회는 好是傾邦富貴專 좋을시고 나라를 기울여 부귀를 누렸구나

오국성은 패망한 중화 황제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기구의 '花石' 과 '風流'는 패망의 원인으로, 패망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상징어이다.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자 가장 어리석은 군주였던 송 徽宗은 유래 없는 호화 방탕의 생활을 하다가 전쟁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가련한 모습으로 죽었다.

<sup>23)</sup> 박래겸, 조남권 박동욱 옮김, 『북막일기』, 글항아리, 2016, 73면, 참조.

대송의 황제가 화석과 풍류에만 관심을 두고 백성과 국방을 도외시하다 가 패망하여 적국에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江南'은 휘종의 아홉째 아들이 망명하여 장강 남쪽 杭州에 세운 南宋 (1127~1279)을 이르는데, 시어로써 '강남'은 부친과 형의 고난을 도외시하고 저 혼자만의 안녕을 도모하는 듯한 미운 의상을 가진다. '秦丞相'은 당시의 대표적인 주화론자인 秦檜(1090~1155)이다. 황제가 금나라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기간 동안에 강남으로 가서 남송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의 대표로 진회를 지목했다. 진회를 부정하는 것은 곧 주화론을 부정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주화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번암에게 있어서 관방은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그 무엇이다. 북송이 중화 문화의 영토를 상실한 것을 아쉬워하며 우리의 무능으로 인한 중화 강역의 위축 또한 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지식인의 청에 대한 적개심이 이후 세대인 번암에게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 다. 그의 의식에서 이적은 극복의 대상이며 조선은 대명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중화로 각인되어 있다. 이 시들 이외에도 관방의 필요성을 일깨 워주려는 의도의 시가 많은데, 다음 시구들도 역시 그러한 전언이 있다.

- ① 侍中一去三韓弱 시중께서 가신 뒤로 삼한이 약해졌으니 皇極殿高皮幣忙 황극전은 높고 조공 바치기에 바쁘구나
- ② 古戍烟空月上溟 수자리 터에 연무가 어려 달떠도 어두운데 北來心事有靑萍 북에 오니 마음속에 청평검이 자리 잡누나

①은 7언 율시『北靑道中』의 미련이다. 이 시는 병자호란 이후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의 시기에 수자리 간 사람들의 고난을 시화하였다. 미련에서 '侍中'은 고려의 장군 윤관인데, 그는 동북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9성을 쌓았다. 이 일은 후세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장한 일로 일컬어졌으며 그가 '一去'했다함은 이후 국가적으로 많은 상실이 있었음을 아쉬워하는 표현이다. '皇極殿'은 淸의 도성 紫禁城의 正宮이며, 우리를 피지배자로 만들어버린 거대한 夷狄의 상징이다. '皮幣'는 '강한 이적에게 굴욕적인 폐백을 바치고 구차한 생존을 도모한다는 뜻이 들어있으니,'24) 고려 윤관이 여진 족을 몰아내고 9성을 쌓았던 그 위업을 후세 사람들이 계승하지 못하여지금 여진족에게 복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②는 7언 절구「夜深步倚城堞」의 기구와 승구이다. 수자리하는 상황과 그때의 심경을 묘사한 시이다. '靑萍'은 중국 고대 보검의 이름이며, 臥薪嘗膽한 越王 句踐의 검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쪽에 오니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굴욕감이 생기기에 그 명검으로써 저 오랑캐들을 초개같이 쓸어 시원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

고려 윤관 이래의 대단한 국위를 후세 사람들이 계승하지 못하고 강한 이적에게 폐백을 바쳐 생존을 도모하게 된 굴욕감을 드러내며 암울하고 느슨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방 상황에 만시지탄 한다. 작자가 가슴속에서 느낀 월왕 구천의 청평검은 여진을 몰아내고 영토를 넓힌 윤관 장군의 다른 이미지이니, 이는 곧 언젠가 기회가 오면 시원한 복수를 하고 북방으로 중화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 하는 번암의 尊王攘夷 관념의 관방의 식이라 하겠다.<sup>25)</sup>

<sup>24)「</sup>梁惠王」下、『孟子』、"事之以皮幣, 不得免焉."

<sup>25)</sup> 그외 관방의 정서가 뚜렷한 경우로「咸關嶺」・「侍中臺」・「利城松田城後改原」・「谷口月波軒」・「城津」・「月夜坐朝日軒」・「明川遇風日陰冷馬上有吟」・「鏡城道中」・「朱村月夜」・「自豐山鎭向會寧路遇大雪」・「行營」・「皇帝塚」・「富寧試罷向

## 3. 過看民情

번암은 북관에서 말에다 붓을 싣고 6천여 리 길을 달리면서 변방을 순행하고 太師의 심경으로 시를 썼다. 하지만 그 스스로 사관이나 태사의 입장을 자임한 적은 없다. 다만 위의 주8)에 있는 「載筆錄序」의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민정을 살핌에 적극적인 시찰의 의미 보다는 말을 타고 가면서 길옆에 펼쳐지는 이방의 풍속과 민생을나그네의 마음으로써 정서적 수용을 하였다.

그래서 '書劍感慨'와 '關防商量'에 이어 '過看民情'을 다른 하나의 갈래로 삼는다. 아래는 연작 7언 절구 「元山歌」의 4수 중 세 번째 시이다.

蒼蒼海色際平蕪 푸르른 바다 빛은 아득한 초원과 같고 十里人烟聚似都 십리에 굴뚝연기 모인 것이 서울 같네 多少門前楊柳樹 여러 집 앞에 늘어진 버드나무에다 豪商來繫濟州駒 대상인이 찾아와서 제주말을 매는구나

더할 나위 없이 넓은 바다는 견주어 비유할 대상이 없다. 그런데 작자는 '際平蕪'로 푸른 바다에 견주었다. 큰 것을 작은 것에 비유하여 一望無際의 의미를 좀 더 감각적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十里人烟'은 都會의 성대함을 이른다. 모두 元山의 장대함을 한껏 나타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多少門前'으로 봐서 문전에 양류가 늘어진 집이 한둘이 아니다. 도시가 번화하고 부유하여 집집마다 내방객이 많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결구의 '豪商'으로서 이미 내방객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겠는데, 말 중의 말인

茂山」・「登五國城」・「發鍾城巡向慶源時與慶源伯約古珥島大獵」・「自黃拓坡向訓 戎鎭道中遇風雪」・「慶源龍堂」・「登牛巖烽臺」・「還自西羅到慶興客舘」・「永嘯堂 歌」・「茂山嶺」・「臨溟驛」・「城津」 등 다수가 있다.

'濟州駒'를 양류에 맴으로써 그 손님이 부유한 사람임도 시사한다. 또한, 고인의 시를 점화하여<sup>26)</sup> '門前楊柳'에 '繋濟州駒'라는 표현으로 '내방객을 반기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원산은 영조 이래로 交濟倉이 설립되어 영남의 浦項과 더불어 지역 간의 흉풍에 따라 糧穀 등의 물화를 교역하던 중심지였다.<sup>27)</sup> 작자는 원산에서 그 번화함에 놀라며 교제창을 설치한 王化의 성과에 대한 찬탄을 하고 있다.

아래는 7언 율시 「朱村月夜」이다.

어린 나이에 집 떠나 멀리 출전을 하여 年少辭家事遠征 鬼門關外木郎城 귀문관 밖에 있는 목랑성에 나와 있네 봉화연기는 바로 촌락 건너편에 선명한데 烽烟正對孤村霽 月色還同故國明 달빛은 오히려 고향과 똑같이 밝구나 版籍壤偏東海界 행정상으로 이 땅은 동해계에 속해 있고 馬蹄天入北兵營 군사적으로 이 구역은 북병영에 들어간다네 空庭萬念蒼茫立 빈 뜰에서 온갖 생각에 멍하니 서 있는데 오랑캐 풀피리로 북방의 소리를 내지마소 莫遣胡笳動朔聲

이 시는 번암이 수자리 나와 있는 어린 병사의 입장이 되어 읊은 시이다. 朱村은 鏡城府의 마을이며 수자리하는 곳이다. 두련의 '年少辭家事遠征' 은 정상적인 징집연령 이전에 징집되어 고향에서 먼 곳으로 수자리 나왔음 을 이른다. '鬼門關'은 한 번 들어가면 열에 아홉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곳 이다. 함경도 鏡城의 관문 이름을 두고 하는 말이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sup>26)</sup> 蘇軾,「和陶淵明擬古」,"有客扣我門,繫馬門前柳"

<sup>27) &</sup>quot;其在北道者曰元山倉, 其在嶺南者曰浦項倉. 肅宗朝, 以北道內奴貢布販穀, 儲置 諸邑, 每年收放, 英宗丁巳, 移置元山, 命監司徐宗玉經紀. 英宗壬子, 慶尚監司趙顯 命奏, 設浦項倉, 以備北道之移轉. 交濟者, 南北交濟也."(『牧民心書』、「穀簿」)

이다. '木郎城'은 여진족이 쌓은 성이다. 고구려 패망 이후 이 지역은 여진의 땅이었으나 고려말에 개척된 이후 우리 땅이 된 군사 요충지이다. '烽烟正對孤村霽'는 전황을 보고하는 봉화불이 달빛에 선명한 모습이고 '月色還同故國明'은 봉화불을 비추는 달빛이 어릴 적 고향의 그 달빛과 같아서갑자기 아련한 향수에 잠겼다는 표현이다.

어린 나이에 군에 끌려와서 수자리를 서면서 달빛 아래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소년병사의 애환을 그렸다. 이는 마치 효자가 行役하여 부모형제를 생각하는 시경 「陟岵」<sup>28)</sup>의 분위기를 재현해놓은 듯이 독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시이다.

다음 몇 구절의 시들도 역시 과간민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籬外櫓聲乘薄暮 울 밖에 노 젖는 소리 어스름에 들려오니 捕魚船匝大洋還 어선들은 바다 가득 대양에서 돌아오네
- ② 参霄萬木路脩脩 온갖 나무들이 하늘에 닿고 길은 아득히 벋었는데 天盡輿圖以外州 창공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땅에 닿아있구나 峽屋似蝸分壟畝 골짜기 가옥은 달팽이처럼 밭이랑으로 나뉘어 있고 官居與鹿共林丘 관아는 사슴과 더불어 숲 언덕에 어우러져 있네
- ③ 土卒多胡語 토졸들에 만주어 하는 자들이 많고 營關覓鹿茸 영관에서는 녹용이나 찾고 있구나
- ④ 窮獸流離勢狼狽 놀란 짐승 흩어지며 낭패한 모습으로 走越彼界如有知 저쪽 땅도 아는 듯이 달려서 넘어가니 胡雛簇列巧相迎 호로들이 늘어섰다 때마침 맞이하여 或搏或蹴無所遺 때리고 발로 차며 남김없이 잡는구나 隔江相呼欲有問 강 건너서 서로 불러 말이나 건내려해도

<sup>28) 「</sup>陟岵」,『魏風』,『詩經』. "陟彼岵兮,瞻望父兮. 父曰嗟予子行役, 夙夜無已. 上慎旃哉, 猶來無止."

#### 其奈語言皆侏離 그 말이 야만어이니 어떻게 통할 건가

①은 위의 「원산가」 4수 중 첫 번째 시의 전구와 결구이다. '籬外櫓聲'으로 봐서 작자는 원산의 어촌에 위치하고 있다. 노 젓는 소리가 '乘薄暮'하고 출어했던 모든 어선들이 '大洋還'하고 있다했으니 표현이 아주 감각적이며 정황을 그려주는 의경이 매우 핍진하다. 한낮의 노동시간이 밤의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어민들의 건강하고 싱싱한 생활현장을 스케치한 구절이다.

②는 7언 율시「茂山」의 두련과 함련이다. '參霄萬木'은 키가 하늘을 찌르는 나무들이 빽빽한 모양이다. 거기에다가 '路脩脩'하니 한 치 앞을 알수 없는 무인지경임을 알려준다. '天盡輿圖以外州'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강역의 끝까지 갔으며 그 너머는 미지의 영역임을 말한다. '峽屋似蝎'는 큰 산과 울창한 숲에 비해 거주민의 주거나 삶이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음을 이르고, '官居與鹿'이라 함은 그야말로 '鳥獸同群'29)의 상황이다. 관부조차도 조수동군의 상황이어서 중앙의 王化가 미치기 힘든 소외영역임을 표현했다. 이 시는 邊塞의 정황을 표현한 시이다. 왕화가 미치지 못하는 변방의 삭막하고 쓸쓸한 풍경과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하찮은 민생의 미미힌 존재감을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니, 왕의 사자로서 이를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배어있다.

③은 5언 율시「廢茂山鎭」의 경련이며, 수자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가도 드문드문한 산길을 따라 폐무산진을 찾아간 상황을 설명하고있다. '土卒'은 매우 질박하고 사실적인 표현이다. 이는 정예롭지 못하여군기가 해이해져 있으며 반민반군과 같은 의상을 가지고 있다. '多胡語'는

<sup>29)「</sup>微子」、『論語』、"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만주어를 할 줄 아는 군졸이 많다는 의미이니 그들과 장사라도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른다. '營關'은 그 지역방위군의 사령부인 셈인데 군무는 도외시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寬應茸'이나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위아래가 군기가 해이해져 있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우 또한 긴밀하여서 아주 훌륭한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시는 번암이 평소 '기상'이 큰 표현을 선호하고 象徵語를 즐겨 쓰는 경우와는 다른 사실적인시라고 할 수 있다.

④는 7언 고시 「古珥島大獵歌」의 후반부이다. 鍾城에서 慶源까지 순찰을 나갔다가 경원 부사와 같이 古珥島에서 사냥을 할 것을 약속했다. 고이도는 경원부 영내의 두만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위의 구절은 사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짐승을 쫓으니 놀란 짐승들이 산지사방으로 튀어 달아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走越彼界如有知'에서 보듯이 동물들은 인간이 설정한 국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강바닥을 타고 넘나든다. '胡雛簇列巧相迎'은 여진족들이 이쪽에서 사냥하는 걸 보고 구경삼아 나와 섰다가 때마침 달려오는 짐승들을 맞이하는 상황이고 '或搏或蹴無所遺'은 사냥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돋우는 모습이다. '隔江'은 엄존하는 경계를 이르지만 '相呼'나 '欲有問'은 서로간의 전쟁이나 지나간 감정 따위는 잊고 인간적인소통을 원하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語言皆侏離'로 서로간의 태생적인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변방 국경지대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도즐거운 사냥대회가 개최되고, 피아를 막론하고 축제분위기로 들뜬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로간의 인간적 동질성과 민족적 이질성을 동시에 확인시켜주는 사실적 정황이다.

번화한 원산항이며 수자리 사는 어린 병사의 얘기며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이며 군영의 사냥대회에 이르기까지, 번화한 도회에 대한 묘사도 있지 만 작자가 북관에서 보고 듣는 것은 대개 군사에 관한 일이다. 국경지대의 사람들은 대개가 군인이거나<sup>30)</sup> 군무와 관계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내지 사람과 달리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작자가 이를 가슴아파한다. 그러니 북관에서 민정을 살핀다는 것은 곧 軍情을 살피는 일이다. 또한이 장의 시 모두가 독자로 하여금 그 정황을 훤히 느끼게 하는 사실성이었다. 번암의 시는 대개 스케일이 크고 기상을 중시하여 상징어를 쓰며 추상어가 많으나 민정과 풍속을 살피는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시어와 사실적인 표현이 많으니 번암시의 새로운 일면이라 하겠다.<sup>31)</sup>

# Ⅲ.「載筆錄」의 特徴과 意義

『재필록』의 시를 읽으면 먼저 느껴지는 의의는 시의 기세가 강하고 기상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앞의 3장에서 언급한 시 구절 중「磨雲嶺」의 '誰令鵬翮揷吾身' 등 많은 구절에서 그런 응대한 기상을 중시한 시풍을 느낄 수가 있다.32) 번암시의 기상에 대한 문제는 생존 당시에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丁若鏞(1762~1836)은 "樊翁의 시는 기상을 매우 중하게 여겼다."33)라고 했고 '중국의 潘庭筠도 그렇게 평했다.'34) 시의 기상론에는

<sup>30)</sup> 申厚命,「西關關防疏」,『林下堂集』"至於江邊, 父子皆軍也, 兄弟皆軍也. 宗族亦然. 隣里亦然, 一邑之中, 無一人不從軍, 惟老弱之不能行步者, 獨留無依賴."

<sup>31)</sup> 이외에도「鐵原道中」・「咸關嶺」・「侍中臺」・「磨雲嶺」・「城津」・「明川遇風日陰 冷馬上有吟」・「輸城舘」・「登牛巖烽臺」・「行營試六鎮儒武李夢瑞委到聯枕臨別有 詩輒次韻贈之」・「鏡城遇燈夕携通判登眺壽星樓仍憶李夢瑞」・「雉城有兒妓長尺許 工彈伽倻琴以中歌曲高低間其年纔八歲書此贈之」 등이 이 부류에 속하나 할 것이다.

<sup>32)</sup> 이러한 유형의 표현으로 '不怕三山暮雪多(「評事辭朝」)'・'身當國事常思死'(「鐵嶺」)・ '干古邦羞滯白頭'(「茂山月夜步巡城堞迤登門樓」)・'皇極殿高皮幣忙'(「北青道中」)・ '北來心事有靑萍'(「夜深步倚城堞」)・'山河氣大三韓傑,星斗光懸萬古名'(「鶴溪山仰亭」)・'悲壯出師歌一闋'(「咸興老妓可憐」) 등이 있다.

천부적 개성이나 신분 등에 의해 시의 우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 "영달한 인물은 기상이 높고, 이에 따라 그들의 시는 우수하다는 칭송이 따른다."35) 번암 역시 이런 관념에 젖은 사람이라 하겠다. 이는 『재 필록』의 書劍感慨에서 더욱 기세가 강하다. 이는 『함인록』의 시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이니, 異方이나 外國을 대하면서 더욱 첨예화함을 볼 수 있다. 추측건대 수탉의 벼슬이나 숫 사자의 갈기처럼 극복하고 싶은 상대에 대해 자신을 과장하여 상대를 기세로서 제압하고 싶은 심리 저변의 무의식이 아닌가 한다. 기상이 높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장엄미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意境으로 일관할 경우 그 병통도 없지 않음'36)을 후일 정약용이 지적한 바도 있다.

둘째, 정조는 번암의 시를 "비분강개하여 '사람들이 燕趙의 유풍이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sup>37)</sup>「易水歌」를 부르면서 秦王을 도모하려 떠나는 荊軻처럼 비장한 심경으로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다음 구절은「發鍾城巡向慶源時與慶源伯約古珥島大獵」의 경력이다.

楯鼻未磨空麗什 방패에 먹을 갈지 않고 헛되이 시를 짓고 樓蘭不斬尙吳鉤 누란왕을 참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칼을 찼네

'楯鼻'에는 荀濟가 梁武帝의 등극에 반대하여 방패 손잡이에 먹을 갈아 격문을 짓겠다고 선언한 고사가 있고, '樓蘭'에는 傳介子가 大宛에 사신으

<sup>33)</sup> 丁若鏞,「家誠」,『與猶堂全書』 过18. "樊翁於詩, 甚觀氣象."

<sup>35)</sup>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30면.

<sup>36)</sup> 정약용, 위의 글, "先輩之言, 不官輕聽, 然至要氣象華麗, 却不成詩,"

<sup>37) 「</sup>蔡濟恭卒記」、 『정조실록』 정조 23년 1월 18일. 悲壯忧慨. "人云有燕趙之潰風."

로 갔다가 樓蘭王의 목을 베어 온 고사가 있다. 순제가 마땅치 않은 황제를 물리치려는 듯 격문을 써야 하고 부개자가 누란왕을 참하는 듯 이적의 원흉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38) 비분강개의 의경은 『재필록』의 행정 중에서 주로 국경에 가까운 6진 지역에서 나타나며, 번암의 전체 시록들 중에서 『재필록』과 『함인록』에서 두드러지게 많다. 둘 다 대청 교섭지역에서의 시록이니 곧 병자호란 이후 굴욕적 대청관계의 여운일 것이다.

셋째로 조선과 청의 관계를 철저히 華夷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關防商量에서 언급한「會寧滌愁軒望五國城」의 '花石風流此可憐, 飢餐朔雪渴胡泉'이나「北靑道中」의 '侍中一去三韓弱, 皇極殿高皮幣忙'나「茂山月夜步巡城堞迤登門樓」의 '烟火新成都護州, 車踰嶺外虜氛收'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sup>39)</sup> 번암의 시록들 중에서 이런 화이의 개념이 두드러진 곳이 세 군데인데, 가장 심한 경우가 『含忍錄』이며 다음이 『재필록』이고 나머지 하나가「關西錄」이다. 『함인록』은 그가 이적으로 여기는 청나라의 도성까지 직접 들어갔을 때의 경우이고 『재필록』은 접경의 변방에서 직접 군사업무를 담당한 때이며, 『관서록』은 평안도 관찰사로서서북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여서 그럴 것이다. 이는 병자호란 이후부터 내려오던 해묵은 이념인데. 城下之盟이 끝난 지 83년 이후에 태어난 번암에

<sup>38)</sup> 이러한 유형의 표현으로 '身當國事常思死, 地到邊城未欲愁'(「鐵嶺」)・'古戍烟空月上溟, 北來心事有靑萍'(「夜深步倚城堞」)・'神州空自大, 抔土亦難棲'(「皇帝塚」)・ '金公拓鎭功何壯, 南相開邊意亦長'(「富寧試罷向茂山」)・'執靮覊魂啼夜雨, 沈沙通寶拾春耕'(「登五國城」)・'壯志劍磨春嶺碣, 前驅雷躪豆江汀'(「自黃拓坡向訓戎鎭道中遇風雪」)・'悲臺角壯龍吟靜, 晚磧詩寒劍氣通'(「慶源龍堂」)・'冰銷玉鑠可憐春, 恨入柔膓結未伸'(「匡城怨歌戲寄李夢瑞鍾山旅几」) 등 다수가 있다.

<sup>39)</sup> 이외에도「自黃拓坡向訓戎鎭道中遇風雪」・「雄城牧禦堂宴飲書贈防帥許令應明」・「茂山嶺」・「登牛嚴烽臺」・「宿西水羅夜是大風震海海濤洶簸」・「古珥島大獵歌」・「發鍾城巡向慶源時與慶源伯約古珥島大獵」・「磨雲嶺」 등 다수가 있다.

게 아직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書劍感慨는 유가적 도덕성에 기반을 둔 서검으로서의 궁지와 임금의 명을 받은 신진관료로서 어려운 일을 앞둔 상황에서 난국 타개의 의욕이 함께 어우러져, 그것을 성취하려는 욕망과 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關防商量은 이적에 대한 적개심과 이제까지 미진했던 국방에대한 반성과 복수심이 함께한다. 過看民情은 민간이나 군영의 일들을 살피고 지나가는 과정인데, 서검감개나 과간민정과 달리 작자의 희망이나 의지가 반영되어있지 않다. 그냥 길섶의 꽃에 잠시 아름다움을 느끼다가 다시 길을 가는 듯한 모습이다.

다섯째로 『재필록』의 시들에는 북방의 景色이 문치주의의 유교국가 의상과는 매우 동떨어진 변방의 분위기가 많다. 그래서 풍경에 대한 인식도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다. 번암이 국내 다른 곳에서 읊은 시들은 대개 화려하고 浩浩蕩蕩하며 좀 비현실적인 의상의 시가 많은데, 이곳에서 쓴 민정시찰의 시들은 사실적이고 긴장도 높은 실존의 분위기이며 質樸하고 土俗的이기까지 하고, 민간의 생활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가 들어있다.

# IV. 結語

국경지대인 북관에는 주로 무장들이 파견되는 게 일반적이나, 업무를 보 좌하는 문관직인 북평사에는 주로 홍문관 등에서 우수한 문관이 차출되었 으며, 그 일환으로 번암이 북평사로 가게 된다. 국왕의 신임하에 주로 내직 에서 일하던 번암은 특수 임무를 띠어 지방으로 파견되기도 했는데 이 북 관행도 그 일환이었다.

그는 임금의 출행을 보좌하는 사관과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태사의 심

정을 시로써 드러내었다. 번암에 있어서 서검은 의기가 있는 선비를 이른다. 그래서 임경업 등의 대명의리에 감정이입하기도 하고, 붕새처럼 큰 뜻을 품고 구만 리 장천을 나르는 듯이 사방에 임금의 심부름을 가서 그 명을 욕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품기도 한다. 단도제처럼 입신양명하고 노래자처럼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겸전의 뜻을 가슴에 지녔으니 이것이 그의 서검으로서의 의기이다.

또한 중화 문화의 영토를 상실한 것을 아쉬워하며 우리의 무능으로 인해 중화 강역이 위축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의 의식에서 이적은 극복의 대상이며 조선은 대명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소중화여서, 송나라에서든 조선에서든 주화론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국방은 문화적인 국방이며 존왕양이의 세계관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것이그의 관방의 인식이다.

번화한 원산항이며 수자리 사는 어린 병사의 얘기며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이며 군영의 사냥대회에 이르기까지, 번화한 도회에 대한 묘사도 있지만 작자가 북관에서 보고 듣는 것은 대개 군사에 관한 일이다. 국경지대의 사람들은 대개가 군인이거나 군무와 관계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내지사람과 달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작자도 이를 가슴아파하고 있다. 그러니 북관에서 민정을 살핀다는 것은 곧 군정을 살피는 일이다. 또한 이장의 시모두가 독자로 하여금 그 정황을 훤히 느끼게 하는 사실성이 있다. 이것이 그의 민정 살핌이다.

번암에게 있어서 관풍은 민간의 세세한 사정을 열거하는 관풍이 아니다. 북평사로서 북관을 순행하면서 그 스스로 마음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쓸어 담아서 가슴으로 소화시켜 자기 가치관에 의거해 창조적 배설을 한 관풍이다. 도성에서 관료생활을 하던 관각문인이북관 변방에서 느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충격을 자기 스타일로 정직하게 흡수한 일기장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재필록』의 관풍일 것이다.

번암시의 특성은 시의 기세가 강하여 장엄미가 있고, 『재필록』에서 燕趙의 유풍처럼 비장미의 시들이 많으며, 또한 대청관계를 철저히 華夷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군정이나 민정을 살피는 측면의 시에서는 매우 사실적이고 실존적이며 토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書劍感慨는 유가적 도덕성에 기반을 둔 서검으로서의 성취욕과 그 현실 적 어려움에 대한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關防商量은 국방에 대한 반성과 이적에 대한 복수심이 함께한다. 過看民情은 민간이나 군영의 일들에 대 한 과정의 감정이며 작가의지나 희망사항이 배제되어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詩經』

『論語』

『孝經』

『孟子』

『莊子』.

『禮記』.

『全唐詩』

『高麗史節要』

『牧民心書』.

『承政院日記』.

『영조실록』.

『정조실록』.

『海東繹史』.

#### 2. 문집

蔡濟恭,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권235~236. 申厚命, 『林下堂集』. 曺植, 『南冥集』, 한국문집총간 권31. 丁若鏞, 『與繪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

### 3. 저·역서

박래겸 저, 조남권 박동욱 옮김, 『북막일기』, 글항아리, 2016.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4. 논문

金甲起,「樊巖 蔡濟恭의 尊我的 文化意識」、『教育科學研究』第7輯, 1993. 김용주,「含忍錄에 나타난 樊巖 蔡濟恭의 華夷觀」、『大東漢文學』第41輯, 2014. 백令호、「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冠嶽語文研究』、2004.

#### 240 韓民族語文學 第80輯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文學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백승호,「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震檀學報』101, 2006.

백승호,「樊巖 蔡濟恭의 詩社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漢文學報』 제26輯, 2012.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삶과 시세계」、『韓國漢詩作家研究』17, 2013.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신복,「蔡濟恭의'萬德傳'研究」,『漢文學論叢』, 1994.

이승복, 『樊巖 蔡濟恭의 '傳' 硏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희수, 『樊巖 蔡濟恭의 記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채용기, 『번암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최준하,「樊巖 蔡濟恭의'傳'文學 연구」, 『語文研究』 24, 1993.

#### Abstract

# The emotion of patrolling people life in 『Jaepilrog』 written by Bun-am Chaejegong

Kim, Yong-ju

Bun-am (樊巖, pen name) Chaejegong(蔡濟恭, 1720~1799) carried out Bukpeungsa(北評事)'s duty as an official of Hongmungwan(弘文館). He won the king's confidence to be assigned to a position in the provinces in case a significant issue arose, dispatching North border(Ed: unclear). He wrote of his experience at the North border in a poem as a historiographer who helps the tour of king(Ed: unclear) and a Taesa(太史), who collects poems among the people. Therefore the poems of Bun-am are criticized in three categories(Ed: confirm word choice), including, feeling of business trip as righteous official(書劍感慨), thinking of national defense(關防商量), and making a tour, inspecting peoples' way of living(過看民情).

He showed his feeling of loyalty to the Ming Dynasty(大明義理) as ImKyeungup(林慶業) and pledged allegiance to the king as an official of the provinces. Therefore he wanted to succeed in life as Dandoje(檀道濟) and to do filial duty as Nolaeja(老萊子). This is his righteous spirit as a government official.

He regrets that Sinocentrism reduces the scale and barbarism flourishes. He thinks that barbarism is to be overcome, therefore the Chosun culture is to be Ming's successor. He thinks that national defense is cultural defense. In other words, he respects Sinocentrism and overcomes barbarism. This is his recognition of national defense.

He embraces other provinces' customs and people's lives on the patrol as traveler's feeling. He accepts folks' emotions and customs as they are. For example, in bustling Wonsan harbor, the homesickness of a young soldier during military service, the desolate mountain village, the shooting meeting

in the barracks. He expresses himself using concrete, realistic words in his poem. This is how he feels about people's lives on the patrol.

As for patrolling people's lives(觀風), he did not watch individual people's situations, specifically. As a bureaucratic writer who has lived in Seoul, he experienced geographical, historical, cultural shock and accepted them in his style. In his poem are the magnificence of a high spirit and the solemnity of resolute determination; he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Qing(清) as cultural to barbaric, too. With regard to how people lived, his poem assumed a realistic mood.

Key Word: Chaejegong, Bukpeungsa, righteous official, national defense, people's living, feeling of loyalty to Ming Dynasty, patrolling people life, realistic mood.

김용주

소속 : 안동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전자우편 : haechon3@hanmail.net

> 이 논문은 2018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